

AUTHOR 권진호

TITLE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의 핵심주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IN 신학사상

vol. 148(봄, 2010): 201-236

Key Words

Family Counseling, Bowen, Winnicott, Theology of Family

논문 접수일 : 2010년 1월 6일

논문 수정일 : 2010년 2월 5일

논문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18일

책 소개

Reinhard Schwarz 지음 / 정병식 옮김

이 책은 연속 간행된 '역사속의 교회' (Die Kirche in ihrer Geschichte) 중 하나이다. 저자 슈바르츠는 뮌헨대학교의 교회사 교수로서 루터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루터의 그리스도론을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으며, 뛰어난 루터 학자인 에벨링의 제자이기도 하다. 연속간행물 '역사속의 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현재에도 교회사를 선도하는 독일의 대표적 학자들이다.

슈바르츠의 이 책「루터」는 1986년에 나왔으며, 그동안 독일에서 루터 평전인 동시에 전문성을 겸한 책으로 평가되어 루터를 알리는데 일조해 왔다. 루터의 출생에서 그가 죽기까지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루터의 생애를 서술

했고, 학문적 요구를 위해 원 자료와 출처를 모두 밝힌 매우 깊이 있는 책이다. 그동안 한국에 루터를 소개하는 단편적인 책들이 있었으나, 일부는 지나치게 야사에 치우치고, 일부는 깊이가 떨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 책에서 이 모든 것을 보완해 줄 것이다.

신국판 / 462쪽 / 19,000원

루터 전인 역사속의 교회



한국신학연구소 · 아우내재단

연구 논문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의 핵심주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권진호

(목원대 강사/ 교회사)

초록

이 논문은 루터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행한 설교를 연구하여 설교가 루터의 행적과 설교된 신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530년까지 행해진 고난주간 및 부활주간 설교 가운데 84편이 전해졌는데, 설교 횟수와 분량, 설교에 대한 신학에서 볼 때 설교자로서의 루터는 종교개혁자, 교수, 작가로서의 루터보다 더 중요성을 지닌다. 설교는 본질상 설교된 상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루터의 설교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의 배경과 계기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루터의 설교는 무엇보다도 교회회중에게 맞춰진 설교요 복음에 거스르는 당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며 싸우는 설교였음을 알 수 있다.

루터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행한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두 의미를 지니는데,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한국루터학회 7회 월례모임(2009년 8월 27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질문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학회원들께 감사함을 드린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로서,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뒤쫓아가고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이 두 가지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한 구절로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과 바른 설교를 요약한다.

주제어

루터, 설교, 고난설교, 부활설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1. 들어가는 말: 루터의 설교에 관한 연구

종교개혁가 루터는 1502년에 세워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12년부터 성서를 강해하는 교수(lectura in biblia)로서 활동하였다. 이 일에는 성서를 주석하는 강의와 토론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로서의 루터보다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 것은 설교자로서의 루터이다.¹⁾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설교(하나님의 말씀)는 종교 개혁적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종교개혁의 기초를 닦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루터는 또한 이 설교가 구원을 증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말씀이 바로 설교에서 현재화되며 구체화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믿음으로 독려하고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는 설교의 의미를 성경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시했다.²⁾ 이는 설교를 구원의 수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³⁾ 가장 권위

1) 설교자 루터와 설교에 대해서는 줄고, “‘메일의 설교자’ 마틴 루터”, 『신학사상』 145 (2009), 223-2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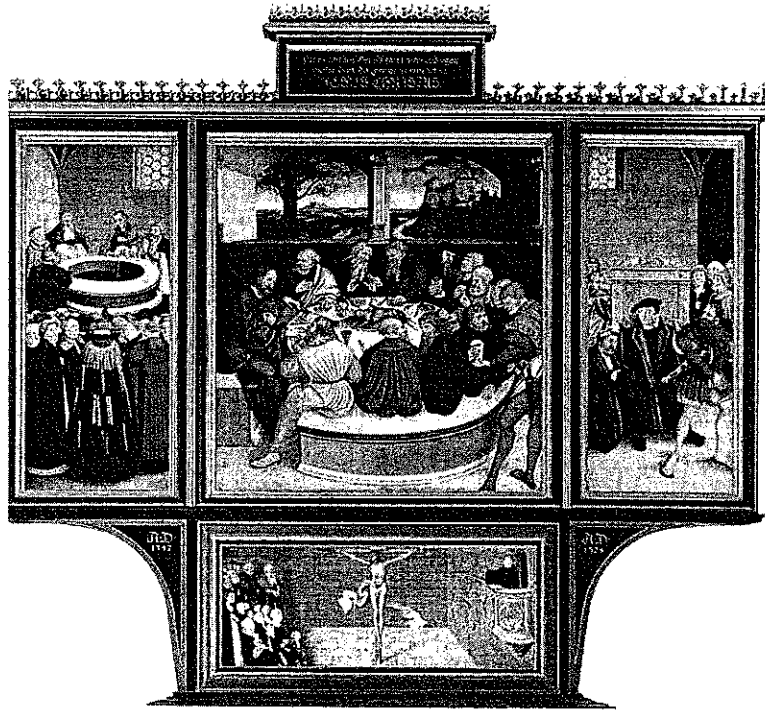
2) Cf. J. Pelikan, “The Bible and the Word of God”, in *Luther the Exposito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64: “루터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절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가리킨다.”

3) A. Beutel, “Predigt: II. Geschichte der Predigt”, in ‘*RGG* 6, 1585-1591 (1587).

있는 바이마르 루터전집(Weimarer Ausgabe: WA) 120권 중, 37권에 루터의 설교가 실려 있고, 그 중 다시 18권이 모두 설교만을 싣고 있음은 루터에게 설교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다.⁴⁾

다음 그림은 루터가 평생 설교했던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의 강단에 있는 것으로서, 1547년 크라나흐(Lucas Cranach d. Ä. 1472-1553)가 설치한 소위 크라나흐 제단이다. 여기에 있는 네 개의 그림은 종교개혁 사상에 근거한 기독교 교회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례가 이루어지는 곳에, 공동체가 성만찬을 위해 모이는 곳에, 회개와 죄사함이 약속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루터가 인정한 성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설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중 가운데 밑에 있는 그림은 강단에 서서 모인 회중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루터를 묘사하고 있다. 그의 한 손은 성경 위에, 다른 한 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루터는 설교란 예수를 선포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십자가는 맨 중앙에 놓여 있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근거가 된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님 허리에 두르신 천이 필력이 있고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단 그림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의 중심은 설교이며,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 가운데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임을 알 수 있다.

4) WA 10III; 16; 17I; 24; 27; 28; 29; 32; 33; 34I; 34II; 36; 37; 41; 45; 46; 47; 49 (총 18권). -그 외에도 ‘설교 모음집(일명 포스틸)’ 여섯 권이 있다(WA 10I/1; 10I/2; 17II; 21; 22; 52).



루터 연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루터의 설교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말해지고 저술되었음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설교 연구는 우리에게 전해진 설교의 양과 중요성에서 본다면, 아직도 미개척 분야에 속한다. 뮌스터대학 교수이며 루터학자인 보이텔(A. Beutel)이 말한 것처럼, 루터 설교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상할 정도로 비생산적이고 추상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일반적인 관찰들을 용의주도하게 늘어놓고, 종교 개혁가의 무진장한 설교 보고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을 곁들임으로써",⁵⁾ 몇몇 중요한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구체적인 것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설교 역사에서처럼⁶⁾ 물론 루터 설교의 연구에도 어려움이 있다. 설교란 공적인 종교적 담화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서 행한 설교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좋은 자료는 기껏해야 루터 자신의 설교원고인데, 그것은 아쉽게도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루터 스스로 몇몇 설교를 인쇄하여 출판했지만, 오늘날 전해진 루터 설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는, 루터가 설교할 때 강단 아래에서 청중이 받아 적은 필사본이다. 그 중 가장 신뢰할 만하고 중요한 필사본은 뢰러(Rörer)의 것이다. 뢰러는 필사본을 통해 루터의 설교를 전달해 줌으로써 종교개혁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설교 필사본은 라틴어와 근세 초기 독일어가 혼합되어 있다. 특히 라틴어로 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루터가 라틴어로 설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루터는 독일어로 설교했다!), 필사자 때문이다. 당시 라틴어가 독일어보다 속기체제를 더 잘 갖추고 있어서 뢰러는 자신의 필사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약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⁷⁾ 루터의 설교를 가능한 한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뢰러 덕분에 우리는 루터가 실제 행한 설교들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뢰러의 필사본에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략도 많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다른 필사본과, 뢰러의 필사본을 편집해서 인쇄한 설교들을 참고하여야 루터설교를 더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A. Beutel, "Verdanktes Evangelium. Das Leitmotiv in Luthers Predigtwerk", in *LuJ* 74 (2007), 11-28 (12).

6) Cf. A. Beutel, "Predigt. A",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Rhetorik* 7, 45-51 (45f); "Lehre und Leben in der Predigt der lutherischen Orthodoxie. Dargestellt am Beispiel des Tübinger Kontroverstheologen und Universitätskanzlers Tobias Wagner(1598-1680)", in *ZThK* 93 (1996), 419-449 (419-420).

7) Cf. WA 29, XVI-XIX; 20, V-VII; 27, V; 28, V-VIII. - 예를 들어 A는 audivimus/audistis를, E는 Euangelium을, P는 Paulus를 의미한다.

결국 루터 설교의 연구는 루터가 강단에서 행한 '설교'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서로 된' 루터 설교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설교의 신학적 자기이해에 근거해 루터 설교를 연구하려고 한다면, 설교가 직, 간접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을 토대로 자료를 더 보충해야 할 것이다.⁸⁾

지금까지 루터 설교의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설교학적 관점(실천신학 분야)에서 루터의 '설교 방법'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교리적, 조직적 관점(조직신학 분야)에서 루터의 '설교 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설교의 전승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교회사 분야)이다. 그 외에도 설교자 루터와 루터 설교의 의의에 대한 연구가 있고, 설교에 대한 해석학적, 수사학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80년대, 루터 설교의 연구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킨 연구는 아젠도르프(U. Asendorf)의 『루터 설교의 신학』이다.⁹⁾ 그는 루터의 바이마르 전집(120여 권) 가운데 삼분의 일이나 차지하는 루터의 설교에 대해 지금까지 요약해 놓은 연구가 없음에 놀라, 루터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했다. 방대한 루터의 설교와 참고문헌을 섭렵한 그의 노력은 그야말로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 방법, 즉 루터 설교의 여러 전승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 없이 자료들을 인용한 것과, 루터가 설교한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그리고 루터 설교들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서술했다는 점들이 비판 대상이 되었다.

루터의 설교가 루터 연구에 있어서 미개척 분야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행한 설교 3000여 편 중 전승된 2000여 편이나 되는 설교의 양에

8) A. Beutel, "Predigt", 46.

9)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nach seinen Predig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 다음 참조. G. Wenz, in *Theologische Revue* 85 (1989), 118-9; A. Beutel, in *LuJ* 57 (1990), 288-290.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된 양이 적기 때문이고, 또한 개별적인 설교에 대한 연구도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 대상이 된 설교는 창세기 설교, 고린도전서 15장 설교, 1522-1523년에 행해진 설교, 1522년에 행해진 7편의 수난에 대한 설교, 부활절 설교, 교리문답 설교 등에 불과하다.

루터의 많은 설교 가운데 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절기설교, 즉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뢰비니히(Loewenich)는 "루터의 모든 신학의 원칙은 십자가 신학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주장했지만,¹⁰⁾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한 로마서 4장 25절 자체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 인간의 구원 관점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완성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절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력의 절정이다.

루터는 설교의 직무를 떠맡은 이후,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설교를 하였다. 이 절기에 한 설교는 다른 절기 설교보다 훨씬 많은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모두 185회 이상, 그 가운데 154편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가 전승되었다. 필자는 설교 시작 초기부터 1530년까지의 설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루터의 신학적 발전, 그리고 대적자들과의 논쟁은 1530년경 거의 마무리되었고, 루터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행한 설교의 전형적인 내용과 신학도 이미 1530년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루터설교 연구 상황에서 필자는 설교도 충분히 신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루터 설교를 텍스트로 삼아 연구하고

10) Walter von Loewenich, *Luthers theologia crucis*, Witten: Luther-Verl., 1967,

자 한다. 먼저 루터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설교자 루터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2). 루터의 설교는 복음이 핵심이지만, 설교되는 상황이 간과될 수 없음을 고려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3). 또한 루터의 설교는 설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4).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라는 주제를 근거로 하여 설교의 내용을 분석한다(5).

2. 1530년도까지의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에 대한 개관

우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설교자로서 루터의 모습과 행적을 분명하게 그려보자.

(1512년부터) 1515년까지의 설교들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루터가 행한 세 번의 설교에 대한 암시가 첫 번째 시편강의(Dictata super Psalterium. 1513-1515)에서 발견될 뿐이다.¹¹⁾ 전승된 설교 중 가장 오래된 부활절 설교는 1516년의 것이다(WA 1, 53-58). 이 설교는 네 복음서를 서로 조화시켜 예수 부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누가복음이다. 루터는 이 설교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마리아승배를 비판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종교개혁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¹²⁾ 그 근거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이다. 즉 루터는 마리아에 대한 '전승'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루터는 발라(Valla)의 본문 내지는 그리스어 원문을 두 번이나 인용하는데,¹³⁾ 이것에서 우리는 루터가

11) WA 3, 58, 16(시편 4:8); 3, 590, 31-33(시편 77편); 4, 259, 21-22(시편 113:1).

12) Cf. Hans Düfel, *Luthers Stellung zur Marienverehr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77.

이미 불가타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30년까지 전승된 설교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설교수	전 승	기 타
1516	2	뢰셔	Löscher, Vollständige Reformatiionsacta.
1518	2	뢰셔	부활주간에 3번 설교하고자 한다고 편지 씀 (Br 1,164).
1520	1	폴리안더	Poliander-Kodex.
1521	8	폴리안더	3월 28일 설교 인쇄. 후작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설교.
1522	4	인쇄	4월 20일 설교 Roth의 Sommerpostille에 포함됨.
1523	8	뢰러/인쇄/포스탈	설교 색인집에 따르면 6편의 설교를 더 하였음.
1524	10	뢰러	3월 20/24일 설교는 또한 인쇄되고 포스탈에 포함됨.
1525	3	뢰러	4월 13일 설교는 Roth의 필사본도 전승. 16일 설교 또한 인쇄.
1526	11	뢰러/인쇄/ 함부르크사본	4월 2/3일의 세 편 설교가 오시안더 논쟁에 영향 받아 1552년 처음으로 인쇄됨.
1527	-	-	설교색인에 따르면 13번 설교했으나, 전승되지 않음.
1528	11	뢰러	4월 5일 설교는 비텐베르크 성(城)교회에서 행함.
1529	18	뢰러/포악/코펜하겐 뉘른베르크 사본	루터가 행한 모든 설교가 전승됨.
1530	6	뢰러/스톨츠/ 크라프트	몇 편의 설교는 인쇄와 아이스레벤 사본으로도 전승됨.

1530년까지 전해진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는 84편이며,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루터가 설교한 것이 분명하나 전승되지 않은 설교 31편이 더 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루터가 설교한 것은 115회 이상이라

13) *Adnotationes in latinam Novi Testamenti interpretationem*, ed. Erasmus, Paris 1505; Erasmus Roterodamus, *Novum instrumentum omne*, Basel: Johann Froben Februar 1516.

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비텐베르크(Wittenberg) 시립교회 혹은 다른 교회들, 즉 비텐베르크 성(城)교회,¹⁴⁾ 비텐베르크 근처에 있는 교회, 캄베르크(Kemberg)교회, 코부르크(Coburg)교회와 다른 여러 도시의 교회에서¹⁵⁾ 지칠 정도로 설교를 행했다. 루터의 설교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전승된 설교들, 그리고—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전승되지 않은 설교들을 위해서는—설교 색인집, 루터의 강의와 편자들이 도움이 된다. 루터는 설교 자체에서 이미 행한 설교나 앞으로 행할 설교에 대한 언급들을 자주하였는데, 서론 부분에서는 이미 행했던 설교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설교할 주제에 대해 말하였다. 루터의 이런 설교형식을 근거로 하여,¹⁶⁾ 우리는 루터가 설교

14) 루터가 1517년 95개 논제를 문에 붙인 바로 그 교회로서, 1525년 영주의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규정에 의해, 루터는 이때부터 영주설교가로 활동했다. 루터는 1526년 4월 3일 부활절 후 화요일 설교를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앞에서, 1528년 4월 5일 종려주일 설교를 선제후 공작 하인리히(Heinrich von Meckenburg)와 에른스트(Ernst von Lüneburg)앞에서 했다. 영주설교에 대해서는 “내일의 설교자” 마틴 루터, 230 참조. 특히 1522년부터 1545년까지 성 교회에서 행한 루터의 설교에 대해서는 G. Buchwald, “Lutheriana. Notizen aus Rechnungsbüchern des Thüringischen Staatsarchivs zu Weimar”, in ARG 25 (1928), 1-98 (71-83) 참조. - 오늘날 우리는 이 당시의 회계장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비텐베르크 성(城)에 머물렀고, 따라서 루터가 어떤 설교를 누구 앞에서 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15) 루터는 1530년 4월 3일(주일)에 비텐베르크에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멜랑히톤(Melanchthon), 요나스(Jonas), 디트리히(Veit Dietrich)와 함께 토르가우(Torgau)로 가서 선제후를 만났다. 이 일행이 모두 아우스부르크(종교회의)로 가는 도중, 바이마르(Weimar), 잘펠트(Saalfeld) 등의 도시를 거쳐가면서 루터는 설교를 하였고, 1530년 4월 15일 성금요일 코부르크(Coburg)에 도착했다. 루터는 이곳에서 (선제후 앞에서) 16일에 한 번, 17일에 두 번, 18일에 두 번, 20일과 21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로 가는 일행과 헤어져, 루터는 4월 23일 코부르크 성으로 들어갔다.

16) 루터의 설교형식에 대해서는 G. Ebeling, *Evangelische Evangelienauslegung. Eine Untersuchung zu Luthers Hermeneutik*, Darmstadt: Wiss. Buchges., 1969, 464-474 참조.

할 때 동일한 설교청중이 거의 빠짐없이 일관되게 예배에 참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520년까지의 루터 설교들은 많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의 설교행적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적어도 10회 이상 설교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종려주일(때로는 한번), 세족 목요일, 성 금요일, 부활주일, 부활절 월요일에는 두 번씩 설교를 한 적이 많았고, 고난주간 수요일과 토요일, 부활주간 화요일에도 경우에 따라서 설교를 하였다.

3. 설교와 상황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의 상황과 청중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설교는 신학적, 교회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풍부한 신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황과 시대적 사건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끄는 연구로는 베르더만(Werdermann)의 책 *Luthers Wittenberger Gemeinde*이 있다.¹⁷⁾ 필자가 아는 바로는 루터의 설교를 근거로 비텐베르크 교회와 당시 시대의 상황을 재현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이것뿐이다. 그는 1528년 10월부터 1532년 4월까지의 설교들을 근거로 하여 비텐베르크 교회의 상황과 ‘시대상을 그려보코자’ 시도하였다.

1530년까지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루터 연구에서 강조된 주장, 즉 루터는 구체적인 교회 상황과 설교 청중을

17) H. Werdermann, *Luthers Wittenberger Gemeinde wiederhergestellt aus seinen Predigten. Zugleich ein Beitrag zu Luthers Homiletik und zur Gemeindepredigt der Gegenwart*, Gütersloh: Der Rufer, 1929, 5-149. - 그러나 이 연구는 단지 1530년대 초기의 상황을 다루었다.

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에서 우리는 루터의 종교 개혁의 사상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신학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공동체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신학을 엿볼 수 있다. 적대자들의 가르침과 신학에 대한 루터의 침례화된 비판과 논쟁은 철저하게 논쟁적인 말들로 표현되었다. 루터는 중세 가톨릭교회가 성만찬을 행할 때 떡만 분배하는 단종 성배를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했고, 츠빙글리(Zwingli)같이 성만찬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들을 열광주의자라 부르며, 이들을 통해 사탄은 성만찬 전체를 빼앗아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황이 가르치는 고해성사는 강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교황 앞에 행하는 것으로 비판했다. 특히 교황은 그르게 설교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고 꼬집으면서, 심지어 교황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Antichristus, non Synchronus)' 라고 거세게 비난하였다.²²⁾ 또한 수도원 제도에 대해 루터는 수도원 제도의 본질이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유다를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로 간주하면서,²³⁾ 모든 수도원들은 안식일에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행악자가 오히려 성 베네딕트와 버나드보다 더 나은 수도원장이라고 하였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등에 근거하여 루터는 수도원제도의 (탁발)청빈, 특히 프란시스코의 가난을 비판했다.²⁴⁾ 루터의 눈에 수도원제도는 그리스도보다 더 거룩하려고 노

22) WA 27, 100, 29-30 (1528년 설교)—루터가 교황과 논쟁하는 가운데, 그 비판의 절정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것이다. 루터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교황의 제자가 될 것인지를 촉구하기도 했다(cf. WA 15, 522, 34-37; 20, 316, 9-10).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교황과 그리스도 사이의 양자택일의 문제였는데, 이것은 특히 1520년대 이후부터 루터에게 근본적인 문제였다.

23) WA 29, 237, 6-7 (1529년 설교): "Iudas est pater Monachorum".

24) Cf. WA 20, 313, 9-17 (1526년 설교); 27, 123, 25-36 (1528년 설교).

력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탄이었다. 루터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적대자' 임을 강조하였다.²⁵⁾

루터의 논쟁은 무엇보다도 (편집되어) 인쇄된 설교를 통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84편의 설교 중 23편이 인쇄되었고, 그 중 9편은 특히 더 자주 인쇄되었다. 거기서 다룬 주제는 성만찬과 고해성사이다. 주목을 끄는 설교로는 1526년에 행해진 세 편의 설교를 들 수 있는데,²⁶⁾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만찬에 관한 설교. 열광주의자들에 반대하여(Sermon von dem Sacrament des leibes vnd bluts Christi, widder die Schwarm geister)』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었다. 이 설교에서 열광주의자들과 츠빙글리는 사탄으로 언급된다. 츠빙글리도 이 설교를 읽었고, 이 설교에 대한 메모를 기초로 하여 루터에 대항하는 글을 쓰게 된다.²⁷⁾ 결국 인쇄된 루터의 설교는 루터의 논쟁을 대외로 공개하였고,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과 함께 그의 논쟁을 도처에 전파시킨 도구가 되었다.²⁸⁾

25) 루터에게서 '사탄'이라는 말은 설교에서 계속하여 나오는 신학적 '기본어휘'에 속하는데, 특히 1526/1527년 이후부터 강화된다. 그것은 특히 교황, 열광주의자, 농민들, 그리고 소위 성체주의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이들 배후에 사탄이 서 있음을 루터는 의식했기 때문이다.

26) 1526년 고난주간 수요일(3월 28일), 목요일 오전, 오후(3월 29일)설교로서, 성만찬에 대한 설교들이다. 이것들은 뒤러, 함부르크 필사본, 인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27) Cf. U. Gäbler, "Huldrych Zwinglis Lektüre von Martin Luthers 《Sermon von dem Sakrament des Leibes und Blutes Christi, wider Schwarmgeister》 1526", in *Zwingliana XVI* (1974-1978), 370-379.

28) "종교개혁 자체는 근본적으로 설교부흥이었다"(R. W. Scribner, *For the Sake of Simple Folk. Popular Propaganda for the German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는 주장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구술로 행한 설교와 인쇄된 설교는 모두 '중심적인 소통수단'으로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구술 설교(주로 루터가 설교한 대로 받아 적은 [뒤러의] 필사본을 근거로)와 인쇄된 설교를 비교해 보면, 인쇄된 설교는 루터의 설교를 그대로 전달해

논쟁적으로 설교한 주제들은 루터가 늘 주장한 종교개혁 신학과 일치한다. 이런 논쟁적인 설교를 통해 루터는 설교 청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에 주의하게 했다. (구술로 된) 논쟁적인 설교는 소통수단과 대중매체로서 종교개혁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논쟁적인 설교는 그의 설교의 주요한 특징임과 동시에 하나의 '전투행위' 그 자체였다.

루터의 논쟁은 적대자에 대한 비판 외에 '설교학적인 역할'을 한다. 루터는 설교에서 자주 예화, 비유, 모티브들을 사용하여, 생생하고 분명한 설교를 하였다. 즉, 루터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논쟁의 대상은 설교 청중들에게 종교개혁 신학과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정적인 예화'로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행위의 의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루터는 수도원 제도와 성인들을 예로 들어 설교했다.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 버렸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수도원으로 달려가고, 카르투지오 수도사가 되겠는가?"²⁹⁾

논쟁의 대상인 부정적인 예들을 통해, 그리고 긍정적인 예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예들(십자가 위의 강도나 마리아)을 통해, 루터는 설교청중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경험을 하도록 설교했다. 설교에 나타난 루터의 논쟁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예들은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주기보다는,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알리는데 더 큰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쇄된 설교에는 일반적으로 편집과 보충이 되어 있고, 특히 실제 설교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쇄된 설교는 필자의 견해로는 한편으로는 '경건서적'(Johannes Schilling)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사상을 널리 알린 매체로 간주될 수 있다.

29) WA 29, 279, 7-8 (1529년 설교).

도구였다.³⁰⁾

4. 루터와 설교

지금까지 루터연구에서 이루어진 것 이상으로 더 루터 설교에 (그리고 그의 강의와 작품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루터 설교의 본질적 특징과 설교에 대한 반복된 강조와 관련이 있다.

첫째, 루터의 삶에 더 큰 비중은, 그가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보다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일이었다. 루터는 연구실에서 얻은 신학과 교리를 설교를 통해 삶과 실천으로 변형시켰고, 주석적인 연구로부터 얻은 신학적인 통찰들을, 비텐베르크 교인들이 알기 쉽고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루터에게서 설교와 강의는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권위자 브레히트(M. Brecht)는 "신학적인 내용에서 볼 때 연속강해설교와 강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³¹⁾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루터는 설교에서 자신의 신학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이 설교에 나타난 신학 사상은 그의 강의나 작품 속에서도 내용상의 차이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³²⁾ 물

30) Cf. WA 29, 178, 9-11 (1529년 설교):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성만찬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오류들을 바르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M. Brecht, *Martin Luther, vol. 2: Ordnung und Abgrenzung der Reformation 1521-1532*, Stuttgart: Calwer Verl., 1986, 278.

32) 루터에게 있어 설교와 강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nnelise Jeremias, *Vorlesung und Predigt bei Luther. Untersucht am Vergleich der Galaterbriefvorlesung von 1531 mit den Predigten über Texte aus dem Galaterbrief unter Hinzunahme der Predigten über Texte aus dem Römerbrief*, 하이델베르크 박사논문 1975, 212. -이 논문은 "루터에게 있어 강의와 설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인, 정의에 따른 차이는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법, 내용상의 작은 차이들이 있을 뿐임을 지적했다. -또한 줄고, "루터의 갈라디아서 설교의 특징 (1/2)", 『목회와 신학』 2010년

론 루터의 설교에서는 그의 신학이 학문적인 수준처럼 자세하게 논증된 것은 아니다. 대신 설교에는 신학 사상이 대중을 위해 그림같이 묘사되어 있고,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신앙과 생활의 실천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1526년의 성만찬과 고해에 대한 설교는³³⁾ 논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쟁 작품처럼 포괄적이고 교육적으로 행해졌다. 루터 설교의 주제들, 예를 들어 구속사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싸움,³⁴⁾ 설교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자유, 믿음과 행위, 그리스도를 본받음 등은 그의 강이나 신학적인 작품에서처럼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둘째, 루터의 설교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루터가 설교를 그렇게 자주 그리고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난주간과 특히 부활주간 설교의 중심사상은 '설교의 중요성(설교의 의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루터는 "설교에 관하여 설교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구원사적 의미, 또는 구원사건의 구조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 1522년 4월 20일에 행한 부활절 설교는, '인간의 죄—그리스도의 구원사역—그것에 관한 설교—믿음—구원'이라는 도식으로 전개된다.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설교도 그 못지 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설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fides ex auditu)"는 잘 알려진 명제 외에도 다음 같은 것들이 루터에 의해 언급되어 졌다. 즉,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계시된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

1/2월호, 139/111이하 참조.

33) 고난주간 수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예배설교.

34) 이에 대해서는 좋고, "그리스도의 싸움과 승리—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자 루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 (2009), 63-82 참조.

게 된다. 그리스도의 구원역사, 즉 그의 십자가와 부활 자체는 '설교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구원실체와 현실이 된다. 설교 임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 도구요, 입의 도구이다. 루터는 설교에서 계속하여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예는 자주 설교된 천사에 대한 부활절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터는 천사를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Dei mundpot)'이라고 해석하며, 설교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부활을 계시하고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

루터 설교의 연구에서 루터의 설교는 지금까지 자주 자료로서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루터의 설교들은 다양한 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따라서 그 설교들이 지니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1530년까지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들을 다양한 전승 자료에 근거해 비교해 보면 전승들 간에 여러 차이가 있지만(상세함[즉 첨가와 편집], 형태[문장구조, 순서 등], 명확성³⁵⁾ 등), 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코펜하겐 필사본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³⁶⁾ 예를 들어 1525년 4월 13일, 고난주간 목요일 설교는 뢰러와 로트(Roth, 츠빅кау 필사본)에 의해 전

35) 내용의 정확성, 명확함은 인쇄된 설교와 특히 뉘른베르크 필사본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뉘른베르크 필사본은 바이마르 전집의 편집자가 언급하듯이(cf. WA 27, XX-XXII; 29, XXVIII이하), 편집된 것으로 논리적이고 내용상 분명하게 써졌다. 바이마르 전집에서 루터의 많은 설교를 편집한 부크발트(G. Buchwald)는 루터의 설교를 뢰러와 뉘른베르크의 필사본을 토대로 작업을 하였다. 루터 설교를 연구할 때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뢰러의 필사본 외에도 뉘른베르크의 필사본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뢰러의 필사본에 매우 축약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의미상 불분명한 부분이나 내용을 뉘른베르크 필사본은 자주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부크발트는 1528년 10월 11일부터 1532년 4월 4일까지의 루터설교를 뢰러와 뉘른베르크 필사본을 토대로 편집했다. Cf. G. Buchwald ed., *Predigten D. Martin Luthers auf Grund von Nachschriften Georg Rörers und Anton Lauterbachs*, vols. 2, Gütersloh: Bertelsmann, 1925/1926.

36) 코펜하겐 필사본은 매우 자유롭게 편집되어 있어, 라틴어로 된 설교 모음집(포스탈)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필사본에 대해서는 WA 27, XXII-XXIV 참조.

승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내용상, 형태상 거의 비슷하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필사본을 바탕으로 하여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독일어로 된 문장요소들이 같은 자리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용상 일치하나, 형태상 좀 상이한 예이다.

뢰러 (WA 171, 175, 8-10)	로트 (WA 171, 175, 25-26)
Denn Christus und ich werden so in ein ander gebacken, das mein sund und tod sein werden und sein gerechtigkeit und leben mein eigen werden. das wyr yn eynander werden gebachen

1520(부분적으로 1521년 역시)년까지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는 단지 뢰셔나 폴리안더에 의해 전승되었기 때문에, 쉽게 그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그 설교들은 이미 루터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5. 설교된 루터의 신학: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Christus pro nobis)

1530년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루터가 행한 설교의 핵심 내용과 설교된 신학을 조직적으로 다루어보자.

이 설교들에서 우선 세 가지 해석학적인 체계가 나타난다. 첫째, 루터의 전형적인 설교방식인 ‘율법과 복음’이다. 이미 1516년 부활절 설교에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명확히 구분했다.³⁷⁾ 또한 그리스도의 수난을

37) 이 설교(WA 1, 58-60)는 사사기 14장 14절, 삼손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부활절 설교로는 특이한 본문을 다루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꿀이 나오듯이, 율법에서 복음이 나온다고 설교한다. 이것을 또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했다. 우선 인간은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죄의 인식-‘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역할), 그 후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음을 깨닫게 된다(죄사함-‘우리의 죄를 위하여’; 복음의 역할). 또한 루터는 모세를 율법의 설교자로, 그리스도를 복음의 설교자로 보았다.³⁸⁾ 율법의 설교자는 요구하고 명령하나, 복음의 설교자인 그리스도는 모세가 요구한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명한 것을 갖다 주는 설교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네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³⁹⁾

모세는 “믿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여기서(이제) 너는 갖고 있다”고 말한다.⁴⁰⁾

‘율법과 복음’은 루터의 특징적인 설교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가 늘 유의한 설교내용에 속한다.

둘째,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많은 설교들은 ‘역사-용도/유익(historia-usus/fructus/ vis)’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절기설교 가운데 오전설교는 역사에 대해, 오후설교는 그 역사가 주는 유익, 즉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유익과 열매에 대해 다룬 적이 많았고, 두 가지를 하나의 설교에서 다룬 적도 있다.

우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역사’에 대한 설교는 ‘역사적 신앙

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시킨다.

사 자	떡 음	사자의 죽음	음식, 꿀
사 탄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죄사함

38) Cf. WA 20, 338, 1-32 (1526년 설교).

39) WA 20, 338, 25-28 (1526년 설교).

40) WA 20, 338, 28-29 (1526년 설교): “Mose dicit ‘Crede’, Christus ‘hic habes’”.

(fides historica)을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선 역사를 바로 아는 역사적 신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설교는 특히 초신자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역사 자체로는 '아무 유익도 갖다 주지' 못한다(WA 15, 509, 24-25).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익'에 더 무게를 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해졌고,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¹⁾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Christus pro nobis)'는 루터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유익(quare)'은 '역사(quod)'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과 열매를 설교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적 설교의 본질에 해당한다.⁴²⁾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이 설교되었고,⁴³⁾ 다른 한편으로는 루터가 이해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는 신앙(fides apprehensiva)'은 루터가 이해한 믿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루터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성례와 모범(sacramentum et exemplum)'으로 본다. 이 개념 안에 설교에 대한 루터의 전체 구상과 설교된 신학의 알맹이가 들어 있다. 이 구조에 따라 설교

41) Cf. WA 32, 43, 22-23: "..... er thut solches nicht seinen halben, sondern dir zu nutz und zu gut".

42) Cf. WA 15, 509, 23 (1524년 설교): "Ubi hoc omittitur, non est Euangelica praedicatio."—이런 관점에서 루터는 요한복음, 마술서신과 베드로서신을 다른 성경보다 높이 평가했다.

43) Cf. Jin Ho Kwon, *Christus pro nobis*, 148-149 각주 11.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루터에게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루터에게 그리스도 전체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사역의 근거가 되는 인격(神人으로서의 본성⁴⁴⁾)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 루터는 그림과 표상을 사용하여 설교하고,⁴⁵⁾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에 집중하여 설교한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의 유일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행위의 의에 쏠리는 인간의 경향과 관련하여, 루터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모든 행위와 말씀들로부터 루터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루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루터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Christus resurrexit)'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Christus pro nobis resurrexit)', '구세주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먼저 '성례'이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뜻하는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44)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해 자주 설교를 했다. 하지만 그는 사색적이고 이론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자주 성경을 인용(요한복음, 시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하거나 그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 말했다.—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네 안에 사시고 거하신다"(WA 9, 666, 31-32, 1521년 설교).

45)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루터는 많은 비유들과 성경의 예, 표상들을 사용한다. 그중 가장 눈에 띄게 묘사한 예는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모티브('미끼에 꿰인 레비아단')이다.

의 의미가 이미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 루터는 성례라는 말 대신에 좀 더 구체적인 용어 '선물' (주어진, 선물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설교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익, 즉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는 동시에 우리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였다. '선물'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익, 열매, 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설교하였다. 특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제관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 즐거운 교환, 하늘의 존재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이고 그림 같은 동기들을 사용하였다. 이런 것들은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의 전형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루터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지닌 유익과 힘을 이미 이루어진 시제(완료)로 서술함으로써, 설교청중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능력의 전제조건으로 믿음을 촉구했다. 여기서 믿음은 성경에 기초하고, 예를 통해 제시되고,⁴⁶⁾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auff Christum sehen)'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주어진 선물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싸움과 승리에 동참하였음을 강조하면서도,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변증법적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둔다. 루터가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다음의 말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46)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루터는 대략 세 가지 성경의 사건 또는 인물을 인용했다. 즉, 민수가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광야에서 지팡이에 들린 놋 뱀 이야기,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가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행악자이다.

내적으로 마음은 즐겁고 기뻐해야 한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한다.⁴⁷⁾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났지만, 옛 사람인 육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육의 존재로서,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운다. 그러므로 루터가 설교할 때 그의 마음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설교의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또는 성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신시키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 청중들에게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의 존재, 육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구분(분리가 아님!)하였다. - 칭의와 성화, 의롭다 선언함과 의롭게 만들,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 몸 전체를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⁴⁸⁾ 그것을 통해 루터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인 존재는 오직 믿음에 근거해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미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나가는 '되어감'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의가 아니라 의롭게 됨, 깨끗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됨이다. 우리는 아직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는 가는 도중에 있다.⁴⁹⁾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계속하여 성장하는 성화, 그리고 믿음의 진보

47) WA 15, 519, 17-18 (1524년 설교).

48) 루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말씀(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서술한다(WA 15, 506-509; 20, 306-311). 루터의 해석을 요약하면, 몸 전체를 씻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칭의(죄사함)를 뜻하나, 발을 씻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필수적인 것, 즉 성화(죄를 버림)의 표시이다.

49) WA 15, 502, 28-31 (1524년 설교 인쇄본).

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루터는 행위의 의에 대항하여, 그리고 행위를 경시하는 경향에 대항하여,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구분되는 관계에 대해 자주 설교하였다. 루터에게 믿음은 행위보다 우월하고 앞서는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행위는 믿음 뒤에 위치하면서도, 동시에 동등한 위치를 점유하는데, 이것은 행위가 행위의 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에서이다.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설명을 보면, 행위는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확신을 주는 행위,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했다.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한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행위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루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를 당시 가톨릭이 해석하듯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⁵⁰⁾ 여기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바로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심판 기준은 곧 믿음을 뒤따르는, 또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

영과 육으로 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서 '모범(exemplum)'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범은 그리스도인의 '육'에 관련을 갖는다.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모범, 섬기시는 그리스도(빌 2장 1절 이하), 강한 발만이 아니라, 연약한 살도 갖고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즉 연약한 그리스도인과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한다는 의미) 등은 그리스도인이 뒤쫓아 행해야 할 모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50) Cf. WA 27, 124-128 (1528년 설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예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믿음을 통해 얻은 그 많은 축복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옛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뒤따르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루터는 십자가 신학, 즉 수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 강함은 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선한 행위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설교청중에게 그리스도를 뒤따름의 본질을 기억케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즉 그리스도를 뒤따름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리스도인의 수난 사이에는 그 목표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죄의 용서, 후자는 육체의 징계와 이웃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루터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⁵¹⁾ 이것은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뒤따르는 것'이다.⁵²⁾ 물론 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밖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서고 머물러야 한다. 셋째로 선행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이 선행, 즉 사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성경의 예(빌립보서 2장 6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를 근거로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웃의 약함을

51) WA 20, 308, 1 (1526년 설교).

52) Cf. Walter von Loewenich, *Luthers Theologia crucis*, 135-144.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써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설교했다.⁵³⁾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범으로서 마지막으로 성인 크리스토퍼(St. Christophorus)를 예로 든다. 그는 루터의 작품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데,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성인으로 잘 알려졌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토퍼, 즉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Christreger)'이라고 말하였다.⁵⁴⁾

6. 나가면서

루터의 설교행적을 볼 때, 그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들은 그의 전체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행한 설교에 속한다. 그러므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설교한 것은 루터의 주요 업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에 루터는 '매일의 설교자'였다(2장).

루터의 설교들은 종교개혁 사상을 선포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과의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루터의 설교에 신학적, 교회사적 자료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루터의 신학과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3장).

루터는 '설교에 대해서 설교했다.' 즉, 루터는 설교의 의미와 본질,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여 설교하였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 사건이 되게 하는 중요한

53) 루터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써 이웃을 섬기지 않는 자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근거로 도둑이라고 보았다. Cf. WA 27, 95, 13-15 (1528년 설교).—흥미로운 사실은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을 무한히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웃 사랑을 마치 죄를 허용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13장 7절에 근거하여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될 때까지) 일정 기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54) WA 32, 32, 30-31 (1530년 설교).

의미를 지닌다고 루터는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 모두 루터의 설교에 관심을 쏟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된다(4장).

마지막으로 5장을 통해 루터의 설교에 담긴 신학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임이 분명해진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루터가 전한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설교해야 할 설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존재의 근거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으로 여긴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두 가동, 즉 성례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여 설교되었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도식은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설교의 내용적인 핵심이요 주요한 구성 요소이며, 루터 설교의 내용, 구조, 방법인 것이다.

성례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 목표, 대상,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설교에서는 동등한 위치요,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설교되어진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고' '거하고' '사시고'(WA 9, 666, 16-17; 31-32), 그리스도인은 선물(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유익, 열매, 힘)을 받는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신적인 존재이다. 즉 내적 인간은 그리스도와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하늘의 존재가 된 것이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로운 존재, 신적인 존재는 진실하고 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핀란드의 루터 연구가들은 '존재에 있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신격화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⁵⁵⁾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런 주장은 루터의 가르침에 위배

55) Cf. Tuomo Mannermaa, *Der im Glauben gegenwärtige Christus. Rechtfertigung und Vergottung. Zum ökumenischen Dialog*, Hannover: Luther. Verl.-Haus, 1989, 189-192.

된다.

우리는 그(그리스도)와 같은 재화를 소유하나, 본질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⁵⁶⁾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은 예수에게 참된 아버지시요 예수는 그의 진짜 아들인 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이다.⁵⁷⁾

루터에게 있어 존재적 신격화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그렇게 매끄럽고 쉽게는 묘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 즉 은혜 받은 죄인이고, 육인 옛 아담과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태인 싸움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존재는 실제이지만, '우선은 아직 감추어져 있는', 즉 종말론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로부터 설교의 의미와 역할은 분명해진다. 루터가 '이미 신격화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강조하여 설교한 것처럼, 성례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감추어져 있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구원을 내용으로 한다. 구원론적으로 짜인 이러한 설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동시에 미래의 구원의 완성됨을 소망하게 한다.

믿음과 직접 관계를 갖고, 내적 인간과 관련된 성례로서의 그리스도는 루터에게 있어 종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포함하지만, 루터는 동시에 윤리적인 관심사, 즉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외적인 인간과 관련

56) WA 29, 298, 17이하 (1529년 설교. 뉘른베르크 필사본).

57) WA 32, 89, 24-26 (1530년 설교. 아이스레벤 필사본).

된다. 내적인 인간은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외적 인간은 사실 이 행위를 즐기지 않는다-를 하도록 격려되어,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리스도의 예를 뒤따르는 행위를 행하고, 또 행해야 한다. 그 행위는 우선 자신의 육체,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뒤따라 이웃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신격화)이면서도,⁵⁸⁾ 동시에 '인간보다 못한 존재'(종)로 표현할 수 있다.

성례로서의 그리스도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도식은 설교의 내용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모두'가 적용된다. 신학적으로 성례로서의 그리스도가 우선적인 위치를 점하지만('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인간론의 관점에서 볼 때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또한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죄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위해서이다"(WA 27, 107, 9-10).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뒤따라야 할 예, 모범으로서 설교된다. 사실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직설법이다. 그러나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은 권고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위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명령법으로 설교되고, 그 명령은 '믿음에 기초되어야' 한다.⁵⁹⁾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성례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58) Cf. Simo Peura, *Mehr als ein Mensch. Die Vergöttlichung als Thema der Theologie Martin Luthers von 1513 bis 1519*, Mainz: von Zabern, 1994.

59) Otto Hermann Pesch, *Theologie der Rechtfertigung bei Martin Luther und Thomas von Aquin. Versuch eines systematisch-theologischen Dialogs*, Mainz: Matthias-Grünwald-Verlag, 1967, 314.

를 통해 루터 설교의 내용과 과제를 결정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내용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형태에 있어서 가르침과 권고(교리와 실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루터의 설교된 신학일 뿐만 아니라, 루터의 설교의 방법을 특징짓는다. 루터의 설교된 신학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 바, 이것은 성례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에서 표현되며, 믿음과 행위, 가르침과 삶, 위로와 권고, 그리스도의 선물과 모범을 포괄한다. 루터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써 복음과 참된 설교를 요약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핵심이 들어 있고, 설교에서 전해야 할 내용이 비취진다. 루터에 의해 설교된 신학의 본질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설교했다는 점에 있다.

참고문헌

- 권진호, "매일의 설교자' 마틴 루터", 「신학사상」 145 (2009), 223-244.
 _____, "그리스도의 싸움과 승리-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자 루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 (2009), 63-82.
 _____, "루터의 갈라디아서 설교의 특징 (1/2)", 「목회와 신학」 (2010년 1/2월호), 139/111이하.
 Asendorf, U.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nach seinen Predig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Beutel, A. "Predigt: II. Geschichte der Predigt". 'RGG 6, 1585-1591.
 _____, "Predigt. A".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Rhetorik* 7, 45-51.
 _____, "Verdanktes Evangelium. Das Leitmotiv in Luthers Predigtwerk". *LuJ* 74 (2007), 11-28.
 Brecht, M. *Martin Luther. Vol. 2: Ordnung und Abgrenzung der Reformation 1521-1532*. Stuttgart: Calwer Verl., 1986.
 Buchwald, G. "Luthers Exhortationes post concionem. Ein noch

- unbeachtetes Stück seiner Kanzelthätigkeit". *ThStKr* 72 (1899), 118-135.
 _____, "Zur Kenntnis der Predigt Luthers", *Luther* 5 (1923), 19-28.
 _____, ed. *Predigten D. Martin Luthers auf Grund von Nachschriften Georg Rörers und Anton Lauterbachs. Vols. 2*. Gütersloh: Bertelsmann, 1925/1926.
 _____, "Lutheriana. Notizen aus Rechnungsbüchern des Thüringischen Staatsarchivs zu Weimar", *ARG* 25 (1928), 1-98.
 Düfel, Hans. *Luthers Stellung zur Marienverehr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Ebeling, G. *Evangelische Evangelienauslegung. Eine Untersuchung zu Luthers Hermeneutik*. Darmstadt: Wiss. Buchges., 1969.
 Gäbler, U. "Huldrych Zwinglis Lektüre von Martin Luthers «Sermon von dem Sakrament des Leibes und Blutes Christi, wider Schwarmgeister» 1526". *Zwingliana* XVI (1974-1978), 370-379.
 Jeremias, Annelise. *Vorlesung und Predigt bei Luther. Untersucht am Vergleich der Galaterbriefvorlesung von 1531 mit den Predigten über Texte aus dem Galaterbrief unter Hinzunahme der Predigten über Texte aus dem Römerbrief*,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Kwon, Jin Ho. *Christus pro nobis. Eine Untersuchung zu Luthers Passions- und Osterpredigten bis zum Jahr 1530*, Kieler Theologische Reihe 7. Münster: LIT, 2008.
 Loewenich, Walter von. *Luther als Ausleger der Synoptiker*.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4.
 _____, *Luthers theologia crucis*. Witten: Luther-Verl., 1967.
 Luther, Martin. *Werke. Ki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Böhlau, 1883-2005.
 Mannermaa, Tuomo. *Der im Glauben gegenwärtige Christus. Rechtfertigung und Vergottung. Zum ökumenischen Dialog*. Hannover: Luther. Verl.-Haus, 1989.

- Pabst, Vera Christiana. "..... quia non habeo aptiora exempla". *Eine Analyse von Martin Luthers Auseinandersetzung mit dem Mönchtum in seinen Predigten des ersten Jahres nach seiner Rückkehr von der Wartburg 1522/1523*, 함부르크 대학교 신학박사학위논문 2005.
- Pelikan, J. "The Bible and the Word of God". *Luther the Exposito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 Pesch, Otto Hermann. *Theologie der Rechtfertigung bei Martin Luther und Thomas von Aquin. Versuch eines systematisch-theologischen Dialogs*. Mainz: Matthias-Grünwald-Verlag, 1967.
- Peura, Simo. *Mehr als ein Mensch. Die Vergöttlichung als Thema der Theologie Martin Luthers von 1513 bis 1519*. Mainz: von Zabern, 1994.
- Scribner, R. W. *For the Sake of Simple Folk. Popular Propaganda for the German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Werdermann, H. *Luthers Wittenberger Gemeinde wiederhergestellt aus seinen Predigten. Zugleich ein Beitrag zu Luthers Homiletik und zur Gemeindepredigt der Gegenwart*. Gütersloh: Der Rufer, 1929.

■ Abstract

"Christus pro nobis"
als zentrales Thema von Luthers Passions- und
Osterpredigten

Kwon Jin-Ho

Dieser Aufsatz zielt darauf auf, anhand der gehaltenen Predigten ein anschauliches Bild von Luther als Prediger und seine gepredigte Theologie darzustellen.

Anhand von 84 Passions- und Osterpredigten bis zum Jahr 1530 wird festgestellt, dass Luther als Prediger dem Reformator, dem Professor und dem Schriftsteller Luther vorgezogen werden sollte.

Und die Hintergründe bzw. Anlässe von Luthers Passions- und Osterpredigten wurden untersucht, um die hervorstechende Eigenart dieser Predigten besser zu verstehen: als auf die Gemeindeglieder bezogene Predigt und als polemische Predigt gegen die falschen Lehren.

Als zentrales Thema von Luthers Passions- und Osterpredigten gilt "Christus pro nobis". Luther versteht den Christus pro nobis in zweierlei Hinsicht, und zwar als sacramentum et exemplum. In "Christus pro nobis" fasst Luther das Evangelium von Christi Passion und Auferstehung und die rechte Predigt zusammen.

Key Words

Luther, Predigt, Passionspredigt, Osterpredigt, Christus pro nobis.

논문 접수일 : 2009년 12월 2일 논문 수정일 : 2010년 1월 31일
논문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18일

책 소개

교회와 신학의 원전 모음 고대교회

Alte Kirche- Kirchen 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 Vol. I



아돌프 마르틴 리터(A. M. Ritter) 원문발췌, 번역, 주석
공성철 옮김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Kirchen- 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모음집)"의 첫 권인 "고대교회(Alte Kirche)"편은 하이델베르크의 교리사가이자 교부학자인 아돌프 마르틴 리터(Adolf Martin Ritter) 교수가 고대 교회사 연구에서 중요한 많은 문헌들을 발췌하여 본래 원어인 희랍어, 라틴어 또는 시리아어로 기록된 다양한 교회와 신학의 역사문헌들을 번역하고, 알기 쉽게 배경 설명과 각주를 첨부하여 연구사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참고문헌을 모두 모아 제시한 자료집이다.

신국판 / 504쪽 / 20,000원

한국신학연구소 · 아우내재단

서울 종로구 청운동 115-1번지 · 전화 738-3265~7 · 팩스 738-0167 · 홈페이지 <http://ktsi.or.kr>

연구 논문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기독교 민족역사교육의 문제*

김성은

(서울신대 교수/ 기독교교육학)

초록

이 논문은 한일강제합병 100주년, 6·25 60주년이란 역사적 요구에 따라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해 민족적 슬픔이요 불행인 분단극복을 위해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고찰한다. 기독교교육이 한반도 내의 남한과 북한, 보수와 진보 간의 반목과 불신, 증오를 넘어서는 화해와 용서, 상호이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만 할 것인가 고찰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기독교 내부의 배타성과 혼란한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새로운 평화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한반도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와 일치, 평화정착과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적 기독교 평화교육의 모델을 발전시킨다면, 이는 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평화적 해결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평화를 신앙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기독교교육학의 특별한 사명과 의무라고 생각하나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의 한반도의 평화

* "이 논문은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어 2009. 11. 14일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